

# 청아한 자연과 정담 나누듯 일곱가지 무대 연출

## 전북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 해·바람·별 등 주제로 '춤·풍류다회, 정담' 공연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2016 목요국악예술무대(춤·풍류다회, 정담) 공연이 오는 8일(목)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예의를 갖추어 손님에게 차를 대접했던 다도의 모습을 사랑방에서 정담을 나누듯 무대에 연출하며 '해·바람·별·강·달·구름·나무' 등 청아한 자연을 담아내고자 했다.

첫 번째 무대는 '해' 아침햇살에 꽃피어날 때, 춘앵전으로 연다. 이는 조선 조 순조 때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숙황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른 봄날 아침에 나뭇가지에서 맑게 지저귀는 피꼬리의 자태를 무용화한 춤으로 우아한 춤사위가 특징이다.

이어지는 '바람' 차와 소리, 금과 한량무)는 한량들의 품격과 자태를 강조하는 남성의 춤이다. 이는 호남의 여유 있는 신채와 넉넉한 평야의 인상을 자연 순응적 춤사위로 풀어낸 춤이다.

'별' 풍경소리, 이매방류 입춤은 호방기생예술의 계보를 잇는 춤이다. 이 춤은 비교적 단순한 형식을 보이지만 기



〈바람〉 차와 소리, 금과 한량무)의 한 장면으로 호남의 여유 있는 신채와 넉넉한 평야의 인상을 자연 순응적 춤사위로 풀어냈다.

교적 세련미와 애잔함이 배어낸다.

〈강〉 다심으로 흐르는 물결, 흥풍류)

는 여인의 생활소품인 목수건 손수건 머릿수건을 활용하여 멋스럽게 풀어낸

춤으로 여인들의 잔잔한 흥과 신명이 녹아난다.

〈달〉 달빛이 사뭇물에 휘영청, 배정혜 류 장고춤)은 태평가와 '경복궁 타령'

에 맞춰 추는 춤으로 고풍스런 흥취가 흐르는 여인의 향기와 멋스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구름〉 하얀 구름에 노닐다 박금슬류 살풀이춤)은 흰 수건을 들지 않고 몸의 움직임을 극대화하여 무아의 경지까지 도달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춤이다. 이 작품은 유연한 곡선에서 몸을 꺾는 부분이 들어 있어 춤의 묘미를 더한다.

공연의 대미는 '나무' 청정한 대숲을 지나는 버꾸춤로 장식한다. 버꾸춤은 타악의 다양한 가락에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춤이다. 이는 전라도 해안지역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에서 속해있던 것으로, 큰 풍북 버꾸를 손잡이 없이 줄로 연결시켜 울려줘고 가락을 치고 돌리며 추는 춤이다.

목요국악예술무대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예약문의는 280-6840.

/정해은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 부각 위한

### '아리울 가을 이야기 with 변진섭' 공연

'열린 공간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변진섭 앨범 1집, 새틀처럼 중에서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아리울 가을 이야기'는 데뷔 30주년을 맞은 변진섭과 함께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주최하고,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병천)과 전주MBC가 함께 주관하는 2016 새만금상설공연 가을 기획공연 '아리울 가을 이야기 with 변진섭'이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예술창고에서 열린다.

가을 기획공연은 2016년 새만금상설공연(아리)와 함께 관광 명소로서의 새만금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연에서 변진섭은 '홀로만'이라는 것, '숙녀에게', '너에게로 또 다시', '새틀처럼' 등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발라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 부대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www.jct.or.kr](http://www.jct.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230-7481.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9월 첫째주 4편 상영

### '히치콕 트뤼포',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 '브링 홈, 아버지의 땅' '사랑이 이끄는 대로'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구 완산보검소, 4층)은 9월 첫째 주 상영작으로 800만 티벳인들의 이야기(브링 홈, 아버지의 땅)와 '히치콕과 대화'를 원작으로 한 세네갈 다큐멘터리(히치콕 트뤼포),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나탈리 포트만 감독의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로맨스 거장 플로이드 트루슈의 신작(사랑이 이끄는 대로) 총 4편을 상영한다.

영화 (브링 홈: 아버지의 땅)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아들의 기도, 고향 혹은 20톤을 난민들에게 선물하는 한 아들의 목숨을 건 17개월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감독 테진 립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티벳 난민으로 자신의 소원이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고향 땅 티벳의 흙 20톤을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모든 프로젝트 과정 그리고 흙을 미주한 티벳 난민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시네마테크로 상영작(히치콕 트뤼포)은 1962년 프랑수아 트뤼포가 알프레드 히치콕에게 경의를 담아 진행했던 세기의 인터뷰를 책으로 출간한 도서 '히치콕과 대화'를 원작으로

한 다큐멘터리이다. 이는 히치콕의 작품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담과 히치콕, 트뤼포의 영화감독으로서의 자세와 우정 등은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틴 스콜세지, 데이빗 핀처, 웨스 앤더슨, 리처드 링클레이터 등 최고의 명감독들에게 전해 듣는 히치콕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영화(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는 지적이고 섬세한 여성 파니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과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점차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작품은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로 꼽히는 세계적 작가 아모스 오즈의 원작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다. 나탈리 포트만이 직접 감독, 각본, 주연을 맡았다. 제8회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지난달 자체적으로 실시한 관객실문조사 결과 반영작품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랑이 이끄는 대로〉는 영화 음악 작업 차 인도를 찾은 자유로운 파리지앵 양부인이 사랑의 신을 만나러 간다는 엉뚱한 여인 안나의 여행에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나탈리 포트만의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뜻밖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세계적 거장 플로이드 트루슈 감독의 신작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 뒤자르맹이 출연해 주목을 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감독 플로이드 트루슈가 실제 인도를 여행하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연출해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6일(브링 홈: 아버지의 땅), 8일(히치콕 트뤼포),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사랑이 이끄는 대로)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각각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립도서관, 유아·초등학생 500여명 대상 '어린이 독서회' 운영

전주시립도서관은 6일부터 총 12주 과정으로 '하반기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한다.

관내 11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독서회는 도서관별 특화분야를 활용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과정에는 유아 및 초등학생 500여명이 참여해 매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인물로 보는 한국어사, △역사 북아트, △영어동화, △놀이하며 배우는 예술융합교육, △그림책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동화 클레이, △글쓰기놀이, △책놀이 등 총 31개 반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 독서회는 책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통한 자존감 형성, 창의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아미술은 책을 매개로 회화, 조각, 각종 미술 작품 활동을 하고 동화 클레이수업은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 상상력을 키워 창의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jonju.gov.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 문체부, '청춘마이크 시즌 2' 20일까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시즌 2' 지원대상자를 20일까지 공모한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총 140팀(팀당 6명 내외)을 선발한다.

아들에게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예술, 스포츠 융·복합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금은 문화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팀당 1회 공연 시 평균 180만 원 내외, 올해 총 4회 공연 시 700만 원 내외의 참가비용을 장학금 또는 창작장려금 등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 한 5팀 내외(총 10팀)의 우수 팀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청춘마이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최우수 1팀(총 2팀)은 내년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 공연페스티벌의 참가 경비를 제공한다.

'청춘마이크 시즌 2' 사업에 신청하려면 전문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전문대학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문대학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또는 문예위 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3분 이내의 공연 동영상상을 제출하면 된다.

/김민근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6일〉

**▷쥐띠**  
46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발생하니 기금적 안정은 피하라.  
60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문서운이 좋으니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운이다.  
84년생: 작은 일에 대한 능력 발휘가 가능한 운.

**▷소띠**  
49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자신도 모르게 안정에 취할 수 있는 운.  
73년생: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흰목의 말만 듣고 편 가르키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울 때

**▷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62년생: 타인의 이익을 너무 의심하지 마라.  
74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이니 기본중계 진행하라.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중간에 막히게 되니 대비.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일의 방향을 잃지 마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주위를 살펴보고 경계하라.  
64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성사신 일이 발생.  
76년생: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88년생: 아성운이 좋아지는 운이다. 다투었던 사람과의 화해를 도모.

**▷뱀띠**  
53년생: 베풀면 덕이 쌓이니 후에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77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야 한다.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경미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

**▷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문서에 질서가 비추니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운이다.  
79년생: 건강에 대한 신경과, 유행성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 운.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라. 좋은 일하고 원망 듣는 운이다.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92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69년생: 변동을 가지면 흥한일이 많으니 기존의 상황 그대로 유지시켜라.  
81년생: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라.  
93년생: 좋은일 했다가 뱀 맞는 격.

**▷개띠**  
48년생: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60년생: 계약을 하기에도 좋고 이동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72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자나 투기는 불리한 운이다.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돼지띠**  
47년생: 자비가 있는 사람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59년생: 모임을 갖거나 회합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71년생: 소홀했던 동기간과의 화합에 좋은 운.  
83년생: 매사 서두르며 빨리하니 급할수록 차분해지는 것이 좋겠다.